

| 2025. 4. 30 (Wed)

meritz 메리츠증권

금융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News

은행권 외화채 발행 '속도'…국민銀 7억弗 조달

한국경제 <https://zrr.kr/YPuS7m>

국민은행은 지난 28일 글로벌 투자자 등을 상대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7억달러 규모 외화채를 발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금융권 외화채 발행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

"자동차업계 SOS"에…은행권, 현대차 협력업체 2400억원 자금 수혈

매일경제 <https://zrr.kr/N8inum>

KB국민·농협·경남·신한·우리·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 현대자동차·기아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경남·신한·우리·하나은행이 각 10억원씩 신보에 특별 출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2천억 돌파…“비대면·저금리 강점”

뉴스저널리즘 <https://zrr.kr/w0pRCC>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출시 9개월 만에 잔액 2000억원을 돌파

100% 비대면 신청 방식과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 빠른 대출 실행 속도가 입소문을 타며 확산 중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은행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뉴시스 <https://zrr.kr/41Wmdb>

신한·하나·우리은행의 1분기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연체율은 평균 0.51%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08%p 상승하며 2015년 1분기(0.59%) 이후 10년만에 최고치

내수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

“증권사 PF 익스포져 다시 증가…27社 중 메리츠증권만 자기자본 대비 100% 넘어”

이투데이 <https://zrr.kr/mbrjrm>

작년말 증권업종의 PF 익스포저 홀로 18% 증가한 31조3000억 원을 기록… 대형증권사 위주로 PF 신규 취급이 증가

대형사는 브릿지론, 본PF 채무보증 잔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 우발부채 전환이 지속하면서 PF 잔액이 감소

“해외 펀드사, 국내 직접 판매”…증권사 반발

한국경제 <https://zrr.kr/GCakCf>

금융당국이 해외 자산운용사에 대한 국내 판매 규제를 풀겠다고 예고하자 기존 위탁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거세게 반발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증권사 우려

금융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최대 130%로 낮춘다

브릿지경제 <https://zrr.kr/AXws8H>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금융당국은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해 보험업권의 건전성과 자본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

동양생명, 5억 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r7bzMW>

동양생명은 지난 28일 5억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 이번 발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국내 보험사의 외화채권 발행 사례

이번 조달은 동양생명의 우수한 자본 적정성과 글로벌 시장 내 높은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